

서삼석, 내년 전남지사 선거 불출마 가닥… 지도부 남을 듯

민주당 최고위원 3명 사퇴… ‘정청래 체제’ 유지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서울시장·경기지사 도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표를 던지면서 1일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돼온 서삼석 최고위원(지명직)은 출마하지 않고 지도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도부를 떠났다. 서울시장(전현희)과 경기도지사(한준호·김병주) 선거에 각각 출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에 남은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직 5명 가운데 이언주·황명성 최고위원 2명,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6명이다.

당초 구성원은 총 9명인데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당헌·당규상 사퇴자가 4명 이하이면 보궐선거로 궐위된 자리를 채운다.

이날 3명의 최고위원만 지도부에서 물러나면서 정청래 체제는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가 점쳐졌던 서삼석 최고위원은 이날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에 뭐라고 드릴 말씀

이 없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출마 의사가 있는 당직자는 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2일 자정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서 최고위원 지인들은 서 최고위원이 앞서 전남도지사 경선에 뛰어든 출마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왔고, 출마 여부를 묻는 각종 매체의 인터뷰에 초지일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얘기해왔다며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라는 중책을 수행 중인 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언제까지 호남특위위원장을 맡을 것일까”고 묻자 “(임명자인) 정 대표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전까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현 도지사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국회의원들이 출마 의사를 잇따라 공식화하고 있다.

지난 6월 김 지사가 가장 먼저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지난 9월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3선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오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4선 이계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가리지 않고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무안 출신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순천 출신의 김화재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3명의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방선거 필수를 다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 10만 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며 범원행정저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권 정부를 완성하고 민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가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직면해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에 뜻을 둔 한준호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을 넘어서 국민 여러 분과 함께 제4기 민주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고, 당원 뜻이 지도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치열하게 달려왔다”며 “당분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사법개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법적 최고형이 내려지고, 내란 가담자 전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 3명에게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주길 바란다.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꽃다발을 건넸다며 말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계속되는 협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예산과 법안·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한남

문인 “광주·전남 통합, 지역 경제 해법”

“자리 연연하지 않을 것” 직위 건 강력한 의지 표명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북구청장(사진)이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직위를 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올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면서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경제난 극복 해법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카드를 공식 제안한다”며 “공직 40여년 동안 키워준 광주에 마지막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달 10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와 경제난 극복 해법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카드를 공식 제안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논의되는 특별광역연합은 시대적 요구를 담기에 부족하다”며 “질서 있게 치러질 경제·산업·행정을 아우르는 완전한 통합을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직위를 건 강력한 통합 드라이브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의 길을 새롭게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통합이 잘 사는 광주를 시작하는 교두보가 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적십자병원 지방채 상환, 시급한 과제”

서임석 광주시의원, 내년도 본예산 심사서 지적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사진)은 1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서에서 “옛 광주적십자병원 지방채 상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2020년 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했고,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7375만원의 이자만 납부해왔다”며 “그러나 매입 후 지금까지 활용 계획은 단 한번도 확정된 적이 없으며, 2026년 본예산에서도 활용 계획 예산은 0원. 오직 이자만 편성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또 “2027년에는 지방채 원금 50억원 일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에도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활용 계획도 없고, 안전 대책도 없고, 7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 건물”이라며 “2027년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준비가 없다면 광주시는 또다시 졸속 대응, 땀집 예산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도 민주보훈과 예산에서 ‘민주보훈유산 보수·정비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8550만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30개 사적지를 모두 합쳐 사용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적십자병원 전용 예산은 0원에 가깝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장승기 기자 sky@

지역기관 ‘상복’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문화대상 ‘대상’

2년 연속…기관·단체부문 수상 유일 공기업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공사 산하 광주 주거복지센터가 단체부문을 함께 수상하며 기관·단체부문 모두에서 대상을 받은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 선도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기관·개인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시상식은 주거복지 문화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공사는 8673호의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며, 입주민의 실질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소모임 기반 관계 형성 프로그램 운영 △영구 임대주택 내 청년 활동가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우산빛어울레 살던집 프로젝트(주거인프라 연계 돌



봄서비스) 등 취약계층 중심의 혁신적 주거복지 사업을 발굴·확대해 온 점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는 그간 29억원을 투입해 2만5034건의 시민의 실질적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사의 지속적 주거복지 혁신 노력과 현장 중심의 실천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바이오진흥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창업 활성화 공로 인정

(재)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와 바이오헬스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은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초기창업기업 육성, 지역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서 거둔 성과가 높게 평가됐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그동안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임상 연계 지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의료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유망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왔다.

특히 지역 내 병원·대학·기업을 연



계한 전주기술개발·검증·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데 더해, 최근에는 그린바이오육성지구 지정 준비와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은 전남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 모두의 성과이자 큰 의미가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보건산업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서왕진 “계엄 1주년…반성 없는 국힘, 사과 필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식 사과 메시지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조차 정무적 독실을 따지는 국민의힘은 참으로 비루한 집단”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부랴부랴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흘러나오지만, 정동혁 대표는 계엄의 원인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로 나가 아스팔트 극우와 한몸이 되어 저주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며 “내란의 역사를 지우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국민의힘의 ‘역사 세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